

# 토기의 시대별 특징

김 영 실(백제 도예원 / 전남 도립대 외래교수)

## 1. 신석기 - 토기의 제작

신석기시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토기 제작을 꼽을 수 있다.

토기는 음식물의 조리과 저장, 운반, 음식물을 보관 할뿐 아니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1)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주로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황해도의 해안지대와 육지와 가까운 섬, 강변, 물과 가까운 저지대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이들은 굽은 모래알이 많이 섞여 있는 사질 점토로 형태는 주둥이 부분이 곧바르고 바닥이 U자형으로 계란을 세워 반으로 자른 모양이 대부분이다.

바닥은 구덩이를 파서 세울 수 있도록 뾰족하게 시작되어 점점 편평하고 안정적인 평저의 형태로 발전된다.

빗살무늬 토기는 명칭 그대로 표면에 생선가시, 나무 조각, 뿔조각, 조개껍질 같은 빗살 도구를 이용하여 긁거나 홈을 파거나 눌러서 표현하였다. 이러한 장식은 문양의 시초가 되었고 그들 나름의 미의식이라 생각된다.

문양은 그릇의 입 부분, 몸체, 바닥 세부분으로 구분지어 나타나며 섬세하고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오늘날 현대 문양보다 훨씬 간결하여 그릇의 형태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사진1 빗살무늬토기(서울 암사동)



사진2 신석기시대 토기

## 2. 청동기 시대

청동기시대는 상당히 발달된 사회 구조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며 발농사를 주로 한 정착된 농경사회였으므로 안정된 생활은 토기제작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실용적인 항아리, 속이 깊은 사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서 쓰이는 기형에서 대접, 굽다리 잔, 손잡이 달린 기형 등 음식을 나르는데 편리하도록 제작된 기형도 제작되었다.

### 1) 민무늬토기

무문토기는 말 그대로 그릇 표면에 문양이 그려져 있지 않아 생겨진 명칭으로,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점토를 사용하고 색깔은 빗살무늬보다 밝은 황갈색에서 담갈색까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 토기는 대부분 원통형의 목과 원형의 밑바닥을 가진 호(壺)형과 입이 넓고 밑바닥이 편평한 발(鉢)형이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 무늬가 없으나, 토기의 입 부분에 점을 찍은 무늬도 있으며 소뿔 형상의 손잡이가 하나, 둘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붉은간 토기, 검은간 토기는 대부분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



사진3 민무늬토기

## 3. 초기 철기시대

초기 철기시대는 청동기 후기와 겹치는 시기로,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 형식이 그대로 계속 되면서 아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둥근 보조띠를 붙인 아가리띠 토기가 제작된다. 이밖에도 입 큰 항아리, 화분모양바리 등이 제작된다.



사진4 덧띠토기(익산 신동리 유적)    사진 5 검은간토기(익산 관원리 유적)

#### 4. 원삼국시대 토기

원삼국시대에 가장 큰 특징은 회색 연질과 적갈색 연질의 타날무늬 토기의 제작이다. 이들의 토기는 개방된 노천가마가 아니라 밀폐된 실요 즉, 지하굴식 혹은 터널식 오름가마에서 산소의 공급이 차단된 환원염 상태에서 제작되어 표면 색조가 점차 회청색으로 변하고 쇠붙이 소리가 날 정도의 석기질 상태를 보이고 있어 토기의 일대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사진6 원삼국시대 각종 토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7 조형토기(울산중산리 ID-15호분  
출토, 창원대학교 박물관 소장)

#### 5. 삼국시대 토기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서 거대한 고대 국가를 형성했던 시기이다. 일정한 영토를 확보하고 왕의 계승이 이루어지며 정

신적인 지주로서 불교를 받아들여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꽃피웠다.

고구려는 만주와 한강이북의 영토를 확보하고 백제는 한강유역으로부터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을 그리고 신라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북으로 함경도 일부까지를 차지하고 660년경까지 삼국이 병존한다.

이들 삼국은 문화를 서로 전파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다.

## 1) 고구려 토기

고구려 토기의 특징은 어깨에는 네 귀가 달리고 간단한 몇 줄의 횡선이나 점렬이 시문되며 형태는 다양하여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고 아가리가 넓고 밖으로 벌어지며 밑은 편평하다. 무늬는 물결무늬, 톱니무늬, 노끈무늬 등이 음각되는 경우가 있다.



사진8 쌍이호  
(서울 구이동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9 광구사이호  
(집안 마선구 1호묘 출토)

## 2) 백제토기

백제토기는 회색연질 토기 및 회청색 경질토기가 있으며, 격자문과 승석문 등의 무늬를 특징으로 한다. 이들 토기는 모래가 많이 섞인 태토를 사용한 것과 치밀한 양질의 태토를 사용한 것이 있으며 물레를 이용했다.

이 시기는 토기제작에 있어서 그 제작수법이 발달하여 백제 특유의 평저기, 세발토기, 특수한 그릇받침, 원추형 굽 달린 항아리 등의 새로운 백제식의 토기로 발전한다. 넓은 입과 가늘고 긴 목 높은 굽을 가진 아름다운 병, 고리모양의 둥근 고리병도 있다.



귀족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벼루의 제작과 불교의 성행을 말해주는 뽕 항아리의 존재도 백제 토기의 성격을 알려주는 예이다. 뽕 항아리는 불교식 화장의 장골 용기로서 백제 후기에 와서 크게 유행하며 그 형태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형태에 따라 항아리모양 뽕 항아리, 합 모양 뽕 항아리, 내호·외호 모양 뽕 항아리, 등이 가장 많다.



사진10 흑도마연토기  
(가락동 2호분 출토,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11 백제 토기(한성백제박물관)

### 3) 신라·가야토기

신라 토기는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용 토기가 대부분으로 1000C이상 구운 석기질 토기로 회전판을 이용하여 제작기술이 기능적으로 발전하고 후기에 가서는 물레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유약은 시유하지 않았으나 표면이 유약을 바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번들거리기도 하였다.

굽다리 장식은 투각이 있고, 민무늬가 주종을 이루며 음각기법으로 삼각형이나 밀짚평행선의 줄무늬를 넣기도 하였다. 또한, 토우를 붙여 주술적인 의미를



사진12 신라 토우장식 긴목항아리  
(경주 노서동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나타내기도 하였다.

사진13 가야 원통모양 그릇 받침  
(경남 합천 출토)

## 6. 통일신라시대 토기

이 시기는 불교문화가 그 중심이며 이상적인 미의 세계를 구현한 불국사, 석굴암이 그 대표이다. 왕들이 불교식으로 다비를 하는 화장법을 사용했으므로 장골용기로서의 뼈 항아리가 주를 이룬다. 긴 목항아리, 뚜껑 있는 합, 뼈 항아리, 생활용기 등이 대부분이며 꼭지가 달려있어 그 특색이 뚜렷하고, 인화무늬, 음각무늬 등이 나타난다. 화려하고 섬세한 기교로 토기의 절정을 이루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사진14 통일신라시대 토기(경주 건천읍 모량리 출토, 영남문화재연구원)

참고문헌: 한국 도자사 -강경숙, 선사와 고대의 여행 -국립광주박물관

## 토기제작 체험

### 1. 점토준비

토기를 만들기 위해 먼저 불순물이 없고 적당한 수분과 점력이 있는 흙을 준비한다.

### 2. 성형

토기를 성형하는 방법은 보통 물레성형과 테쌓기(코일링) 기법이 있으나 일반인들은 테쌓기 기법이 손쉽다. 준비한 점토를 밀대로 밀어 바닥을 만들고 엇가락처럼 긴 가래를 쌓아 말아 올리는 기법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든다. 주로 항아리 형태로 배가 볼록하고 아가리가 좁아지는 형태로 빚는다. 한 줄 한 줄 쌓으며 위와 아래를 눌러 떨어지지 않게 붙인다.



사진1 점토를 밀대로 밀어 둥근 바닥을 만들고, 접합이 잘 되도록 시문구를 이용하여 침선을 새긴다.



사진2 침선을 새긴 가장자리에 접합이 잘되도록 붓을 이용하여 물을 묻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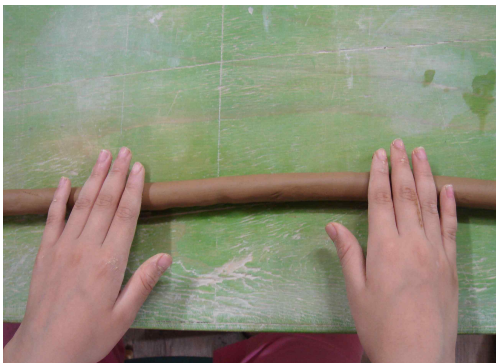


사진3 점토로 엇가락처럼 긴 흙가래를 만든다.



사진4 둥근바닥의 가장자리에 긴 흙가래를 올린다.





사진5 그릇 안쪽을 손가락으로 눌러 내려 흙가래와 바닥을 접합시킨다.



사진6 흙가래를 한 줄씩 쌓아올린 후 손가락으로 눌러 내리면서 접합시킨다.



사진7 흙가래를 쌓아 올리면서 그릇의 형태를 만든다.



사진8 아가리는 좁게 오므렸다가 다시 벌어지도록 형태를 만든다.

### 3. 장식

성형한 토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만들어진 형태에 손잡이나 문양으로 장식한다. 뿔죽한 도구를 이용하여 그리거나 흙을 파서 원하는 모양을 내고 손잡이를 달아 장식적인 효과와 쓰임을 좋게 한다.



사진9 문양을 새기거나 손잡이 등을 붙여 장식한다.

#### 4. 건조하기

성형된 토기는 그늘이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서서히 완전히 건조시킨다.

#### 5. 굽기(소성)

제작된 토기는 노천이나 가마에서 800~900도의 온도로 서서히 굽는다. 소성된 토기는 서서히 식혀서 꺼낸다.